

최희연



32

피아니스트 최희연,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로 일컬어지는 그녀가 지난 12월, 데카 레이블로 네 개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가 담긴 음반을 발매했다. 데카 레이블 데뷔 음반을 발매하면서 그녀는 음반 라이너 노트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베토벤을 몇 마디로 축약하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수많은 베토벤 음반과 저서가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고전의 형식은 다르지만 전통에 순응할 줄 모르는 베토벤의 32개의 소나타는 들여다보면 어느 작품이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베토벤의 천재성이 빛난다."

2002년부터 3년여에 걸쳐 진행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한 최희연은 이 시리즈로 2005년, '올해의 예술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바이올린 소나타, 첼로를 위한 소나타와 변주곡 등을 모두 전곡 연주했고, 최근에는 독일과 미국, 한국에서의 연주를 연결해 두 번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사이클을 완성했다. 이 모든 행보를 걸으며 그녀가 발견했을 베토벤의, 그의 피아노 소나타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지 듣고 싶었다.

"저는 베토벤이 무척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물론 그가 천재적 능력과 음악적 욕심에서 비롯한 괴팍했던 행동들을 보이긴 했지만, 음악에서만은 자신의 철학과 신앙을 굽히지 지켜나가는 것을 발견해요. 베토벤의 음악은 늘 '어떤 문제점'이 제시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음악 안에서 그는 그 문제를 풀어낼 논리적 해결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죠. 그가 진취적이고 영웅적인 면모만을 숭배했던 폭군의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알면 알수록 그의 마음속에 부드러움과 사랑이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베토벤은 폭군을 싫어했죠. 카리스마와 폭력이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베토벤에 대해 알아가면서, 저 스스로도 그의 음악을 더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베토벤의 곁에 저를 내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부드러움을 품은 베토벤, 그의 곁에 앉아있는 듯한 피아니스트 최희연에게서는 담백한 설렘과 깊은 평안이 느껴졌다. 존경해마지않으면서도 편하게 대할 수만은 없는, 피아니스트에게 늘 '가깝고도 먼' 당신인 베토벤이 것만, 최희연에게서 그를 대하는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것이 놀라웠다.

"유학 가기 전 어린 시절에는 도미넌트와 토닉이 많은 베토벤의 작품을 좋아했죠. 확실한 어법을 가진 그의 작품은 그때 제가 처해있던 상황에 격려가 되어주었어요. 제가 볼 때 메시지감이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베토벤 작품을 연주하는 것에 대해선 저도 의무감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유학 시절 베토벤의 작품은 필수 과목처럼 배워야만 했고, 또 베토벤의 작품에 대한 저 나름의 해석만으로는 연주가 힘들었죠. 하지만 제 스승이신 한스 레이그라프(Hans Leygraf) 선생님을 통해 베토벤의 작품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레슨을 받고 나면 길을 뚜렷하

게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셨어요. 귀국 후에 금호아트홀에서의 전곡 연주가 무척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의 작품을 많이 알아야겠다는 책임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토벤의 가치를 수식하는 언어들에 대해 많이 경향하게 된 것 같아요. 신약 성경, 서양 음악사의 가교 등 그에 대한 호칭과 개념들이 실제로 맞는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 직접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독일 레코딩 명소인 텔덱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번 녹음은 프로듀서 마틴 사우어(Martin Sauer)가 함께 했다. 녹음에 사용된 피아노는 베를린 필하모니의 전속 조율사이자 알프레도 브렌델, 안드라스 쉬프가 아끼는 조율사인 Thomas Hübsch이 주선한 뵘뎀도르퍼 Bösendorfer VC280이다. 악기의 깊이 있는 음색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의 진중한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녹음 작업은 제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녹음 작업을 마치고 함께한 프로듀서와 함께 '이번 녹음을 통해 우리가 한 번 더 성장했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번 녹음은 프로듀서가 제 레퍼토리를 보고 작업을 해 보고 싶다고 먼저 말씀해주셨습니다. 녹음할 작품 목록을 보니 제가 어떤 피아니스트인지에 대한 감이 잡히셨다고 하더군요. 프로듀서에게도 베토벤 녹음을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문 만큼, 함께 베토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작업했습니다."

이번 음반에는 베토벤의 중기 작품인 <제18번>, '고별'이라는 부제를 가진 <제26번>, 그리고 후기 소나타인 <제27번>과 <제30번>이 수록되어 있다. 최희연은 수록곡 선정 기준에 대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였다"라고 언급했다.

"특별히 <제18번, Op.31-3>은 제 마지막 스승이신 죄르지 세복(György Sebök) 선생님과 의 연관으로 제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베토벤에 대한 레슨을 받았을 때, 선생님은 마치 베토벤 해석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것처럼 이전까지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선생님께서 당시 피아니스트 리히터에 대한 다큐멘터리 '에니그마'를 보시고는 '그래, 이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선생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해석에 완벽히 동의했고요. 그러나 그해 선생님은 유럽 투어 도중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저는 후에 선생님이 마지막 유물처럼 남기신 유럽 투어 연주 영상에서 <제18번, Op.31-3>을 연주하시는 것을 보게된 것입니다. 평생을 연구하신 선생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베토벤에 대한 해석을 계속 고민하면서 새로운 연주 방법들을 찾으셨다는 것은 제 연주 인생에도 의미 있는 자국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베토벤이 청력을 상실한 후에 작곡한 <제27번, Op.90>과 <제30번, Op.109>에는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수많은 독일어 지시어가 사용된다. 관용적으로 사용된 이탈리아어가 아닌 베토벤 자신의 언어로 적어 내려간 지시어들에서 최희연은 그의 내면적 표현의 욕구를 관찰해낸다. "모든 음악은 항상 내면적 표현이지만, 베토벤의 악보에서 엿볼 수 있는

지난해 12월, 피아니스트 최희연이 첫 데카 레이블 음반을 발매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중 네 곡이 수록된 이 음반은 오랜 시간 베토벤의 연구를 거듭해온 그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베토벤의 곁에 담백하고 다정한 시선으로 함께 하고 있는 최희연. 오는 1월 31일에는 음반 발매 기념 독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THE PIANO • JANUARY 2019

33



베토벤은 이 곡이 전담하고자 하는 것이 '고상하고 더 나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함께 붙들여 줄 정신, 시간이 파멸시킬 수 없는 그런 정신'이라고 말한다. 이 '정신'은 첫 음부터 우리에게 잔잔하지만 빠른 흐름으로 말을 걸어와 곧 확장되며, 마지막 심판(Dies Irae) 경고와 같은 2악장을 지나 3악장에 이르러 노래로 꽃을 피운다. 3악장 변주의 절정은 신앙고백(Credo)의 클라이맥스 부분을 떠올리게 하며, 마침내 주제로 회귀한 코다는 감사와 평화로 가득한 '아멘'의 송가와도 같다. 곡 전체가 베토벤의 솔직한 심경의 토로이자 베토벤 자신을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소망이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나의 고백이자 소망이기도 하다.

것은 그가 그 모든 표현들을 다 써 내려갔다는 것이죠. 베토벤 스스로가 표현하고 싶은 바가 명확하고 확실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떠한 타협도 없이, 적극적으로 표기해 내려갔죠."

오는 1월 31일, 최희연은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하여 독주회를 열 예정이다. 앨범에 수록된 <제26, 27, 30번>과 함께 <제8번 '비창', Op.13>이 함께 연주된다. 오랫동안 베토벤을 연구해온 그녀의 깊은 음악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어떤 작곡가의 음악을 대하면 동일한 것은, 작곡가가 우리에게 자신의 음악으로 향하는 길을 이야기해준다는 것이예요. 그 가이드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다만 다른 것이라면, 베토벤이 이끌고 가는 길은 그리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그의 음악은 마치 씹어서 삼키기에 거칠고, 딱딱한 어려운 재료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딱딱함을 조금 참고, 계속 잘 씹다 보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과즙을 맛볼 수 있게 되죠." 그녀의 스승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녀의 베토벤 연주에 대한 앞으로의 심도 있는 연구가 거듭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이번 앨범과 독주회를 통해 그 걸음의 의미 있는 횡단연을 목격하게 되기를 바라본다.

글 · 허서현 기자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Beethoven Abend

일시 : 1월 31일(목) 오후 8시
장소 :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곡목 :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8번 c단조, Op.13> 외

2018년 10월 피아니스트 최희연 음반 라이너 노트 중 <Op.109>에 대해서 발췌